

<b>보도</b>	<b>2024.3.8.(금) 조간</b>	<b>배포</b>	<b>2024.3.7.(목)</b>		
<b>담당부서</b>	금융사기대응단	<b>책임자</b>	<b>팀 장</b>	<b>장종현</b>	(02-3145-8140)
	금융사기대응1팀	<b>담당자</b>	<b>선임조사역</b>	<b>김대희</b>	(02-3145-8149)

##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,700만원 피해, 전년比 1.5배 ↑ -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-

※ 본 통계는 '23년 중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# 주요 내용

- **(피해규모)** '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**1,965억원**으로 전년(1,451억원)보다 **514억원(35.4%) 증가**
  - 피해자 수는 감소(10.2%↓)하였으나,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
- **(피해구제)** 「통합신고대응센터(☎112)」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**환급률 개선\***(7.1%p ↑)
  - \* 피해금액 1,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
- **(유형별)**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**대출빙자형(35.2%) - 가족·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(33.7%) - 정부기관 사칭형(31.1%) 順\***
  - \*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,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
- **(연령별)** **20대 이하(+139억원)** 및 **30대(+135억원)** 피해 크게 증가
- **(권역별)** 사기이용계좌 중 **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,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**

## 1 개 황

- **(피해규모)** '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**1,965억원**으로 전년(1,451억원)보다 **514억원(35.4%) 증가**하였음
  - 전년 대비 피해자 수\*는 감소하였으나, 피해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\*\*이 크게 증가

\* 피해자수: '22년 12,816명 → '23년 11,503명 (△1,313명, 10.2% ↓)

\*\* 1인당 피해액(백만원): '19년 13.3 → '20년 12.9 → '21년 12.7 → '22년 11.3 → '23년 17.1

- (피해구제) 피해금액 1,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으며,
  - 「통합신고대응센터(☎112)」 개소('23.9월)에 따른 보이스피싱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(환급액÷피해금액=33.2%)이 전년(26.1%)보다 개선되었음(7.1%p ↑)

###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

(단위 : 억원, 명, %, %p)

구 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전년대비 증감(률)
피해금액*	6,720	2,353	1,682	1,451	1,965	(35.4)
환급액	1,915	1,141	603	379	652	(72.0)
환급률	28.5	48.5	35.9	26.1	33.2	(7.1)
피해자수	50,372	18,265	13,213	12,816	11,503	(△10.2)

\* 피해구제신청접수(1차 계좌) 기준 (이하 동일)

## 2 피해현황

- ① (유형별)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(35.2%) - 가족·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(33.7%) - 정부기관 사칭형(31.1%) 順으로,
  - '23년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(+398억원) 및 대출빙자형(+381억원) 피해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으며,
    - 가족·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'22년보다 크게 감소(△265억원) 하였음

###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

(단위 : 억원, %, %p)

구 분	'21년		'22년(A)		'23년(B)		증감(B-A)	
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
대출빙자형	521	(31.0)	311	(21.4)	692	(35.2)	+381	(13.8)
사칭형	1,161	(69.0)	1,140	(78.6)	1,273	(64.8)	+133	(△13.8)
메신저피싱	991	(58.9)	927	(63.9)	662	(33.7)	△265	(△30.2)
기관사칭	170	(10.1)	213	(14.7)	611	(31.1)	+398	(16.4)
합 계	1,682	(100.0)	1,451	(100.0)	1,965	(100.0)	+514	-

② (연령별) 50대(560억원, 29.0%) 및 60대 이상(704억원, 36.4%)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,

- 20대 이하(+139억원) 및 30대(+135억원)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

**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\***

(단위 : 억원, %, %p)

구 분	'21년		'22년(A)		'23년(B)		증감(B-A)	
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
20대 이하	52	(3.1)	92	(6.4)	231	(12.0)	+139	(5.6)
30대	121	(7.3)	53	(3.7)	188	(9.7)	+135	(6.0)
40대	219	(13.2)	145	(10.1)	249	(12.9)	+104	(2.8)
50대	650	(39.3)	477	(33.1)	560	(29.0)	+83	(△4.1)
60대 이상	612	(37.0)	673	(46.7)	704	(36.4)	+31	(△10.3)
<b>합계</b>	<b>1,654</b>	<b>(100.0)</b>	<b>1,440</b>	<b>(100.0)</b>	<b>1,931</b>	<b>(100.0)</b>	<b>+491</b>	<b>-</b>

\* 피해구제신청접수(1차 계좌) 기준(법인 제외)

③ (권역별)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,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(72.1%)을 차지

- '22년 급등하였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크게 감소('22년 304억원, 20.9% → '23년 197억원, 10.0%)
- 반면,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(306억원)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

**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**

(단위 : 억원, %, %p)

구 분	'21년		'22년(A)		'23년(B)		증감(B-A)	
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	금액	(비중)
은행	1,080	(64.2)	1,111	(76.6)	1,418	(72.1)	+307	(△4.5)
인터넷전문은행	129	(7.7)	304	(20.9)	197	(10.0)	△107	(△10.9)
비은행	602	(35.8)	340	(23.4)	548	(27.9)	+208	(4.5)
증권사	220	(13.1)	34	(2.3)	31	(1.6)	△3	(△0.7)
중소서민금융 등	382	(22.7)	306	(21.1)	517	(26.3)	+211	(5.2)
<b>합계</b>	<b>1,682</b>	<b>(100.0)</b>	<b>1,451</b>	<b>(100.0)</b>	<b>1,965</b>	<b>(100.0)</b>	<b>+514</b>	<b>-</b>

\* 농협회원조합, 새마을금고, 우정사업본부, 신용협동조합, 수협단위조합, 저축은행 등

### 3 주요 특징

#### ①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 증가

- 그간 정부·금융업계 피해예방 노력으로 총 피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,
  - 1억원 이상 피해(+95명, 69.9% ↑) 및 1천만원 이상 피해(+1,053명, 29.3% ↑)를 입은 고액 피해자가 증가하였음(☞ 붙임1 ‘고액 피해사례’ 참고)
-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·기관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\*
  -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 역시 가장 높았음(2.3억원)

\* (피해금액) : 1억원 이상 총 피해금액(473억원) 중 44.4%(210억원)  
 (피해자수) : 1억원 이상 총 피해자(231명) 중 39.0%(90명)

#### 고액 피해 세부현황

구분	'22년(A)			'23년(B)			증감(B-A)			
	피해금액(억원)	피해자수(명)	인당피해금액(백만원)	피해금액(억원)	피해자수(명)	인당피해금액(백만원)	피해금액(억원)	피해자수(명)	인당피해금액(백만원)	
1억원 이상	대출빙자형(a)	56	40	141	130	72	181	+74	+32	+40
	사칭형(b=c+d)	192	96	201	343	159	215	+150	+63	+15
	메신저피싱(c)	111	64	173	133	69	192	+22	+5	+20
	기관사칭(d)	82	32	256	210	90	233	+128	+58	△23
	합계(a+b)	249	136	183	473	231	205	+224	+95	+22
1천만원 이상	대출빙자형(a)	179	653	27	489	1,807	27	+310	+1,154	△0
	사칭형(b=c+d)	713	2,944	24	811	2,843	29	+98	△101	+4
	메신저피싱(c)	617	2,660	23	486	1,837	26	△131	△823	+3
	기관사칭(d)	96	284	34	325	1,006	32	+229	+722	△2
	합계(a+b)	892	3,597	25	1,300	4,650	28	+409	+1,053	+3

## ② 20대 이하는 기만사칭 30·40대는 대출빙자 50·60대는 가족·지인 사칭

-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(85.2%, 1,579명)은 정부·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  - 주택·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·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低利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\*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  - \* 30대 피해자의 62.9%(514명), 40대 피해자의 69.1%(867명)가 대출빙자형 수법에 피해
  - 한편, 50·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피싱(가족·지인 사칭)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규모가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큰 비중\*을 차지(☞ 붙임2 ‘2023년 보이스포싱 피해 세부현황’ 참고)
  - \* 50대 피해자의 58.3%(1,976명), 60대 이상 피해자의 75.6%(3,000명)가 메신저피싱 수법에 피해

## ③ 스미싱 ‘미끼문자’ 를 이용한 범행시도 급증

- ‘23년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였는데,
  - 이는 과태료·벌칙금 납부, 택배·배송 조회,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
  - ※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‘23년에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,874% 폭증(‘22년 17,726건 → ‘23년 350,010건)
  -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루었으나,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였음

### 스미싱 문자 신고·탐지 현황(한국인터넷진흥원)

(단위 : 건)

구 분	‘22년(A)	‘23년(B)	증감(B-A)
공공기관 사칭	17,726	350,010	+332,284
택배 사칭	19,214	91,159	+71,945
지인 사칭	4	59,565	+59,561
기타	178	2,566	+2,388
전 체	37,122	503,300	+466,178

## 4 향후 대응방안

### ①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 지원

- 8.28. 시행되는 개정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前이라도 조기 안착 될 수 있도록 시스템·업무매뉴얼 마련 등 적극 지원
- 금융회사가 상시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를 탐지 즉시 지급정지함으로써 고객의 재산피해를 최소화

### ② 정부기관 사칭·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 강화

- 정부기관·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안심마크(🔒 확인된 발신번호) 표기\*를 확대 추진
- \*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를 표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, '24.2월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이용 중

### ③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실시

-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율배상을 실시('24.1.1., 「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」 시행)

### ④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고도화 추진

- 통신사 등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AI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·보급을 추진
- 아울러, 안면인식서비스\*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
- \*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시점의 고객 얼굴촬영사진을 비교하여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(금융결제원)

### 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교육 실시

-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소비자 특성·취약한 사기수법\* 등을 감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및 홍보 채널 차별화\*\*
- \* (20대 이하) 기관사칭형 수법 / (30·40대) 대출빙자형 수법 / (50·60대) 가족·지인 사칭형 수법
- \*\* (청소년) 1사 1교 프로그램 활용 / (대학생·청년층) 대학교 실용금융강좌 (중장년층)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/ (고령층)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연계교육 실시 등

## 5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###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, 늘·꼭·또 하세요!

- 늘 의심하고, 꼭 전화끊고, 또 확인하고! -

#### □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.

-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·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, 개인정보 제공, 자금 요구, बैं킹앱\*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

\*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बैं킹앱 설치를 유도

※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,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 대출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

-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,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

→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,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함

#### □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세요.

-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터치하면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(신용)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피해 발생

#### □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.

-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(☎112),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



□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.

☑ **개인정보(신분증, 계좌번호 등) 노출사실을 등록하세요!**

- ☹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(pd.fss.or.kr) 접속
- ☹ 이용약관,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
- ☹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

☑ **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!**

- ☹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 접속
- ☹ 주민등록번호 입력,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
- ☹ 「내계좌한눈에」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·대출 계좌 상세내역(은행, 계좌번호, 개설일, 잔고 등) 확인
- ☹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 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

☑ **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!**

- ☹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(www.msafes.or.kr) 접속
- ☹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로그인
- ☹ 「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」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 내역을 확인
- ☹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
- ☹ 「가입제한 서비스」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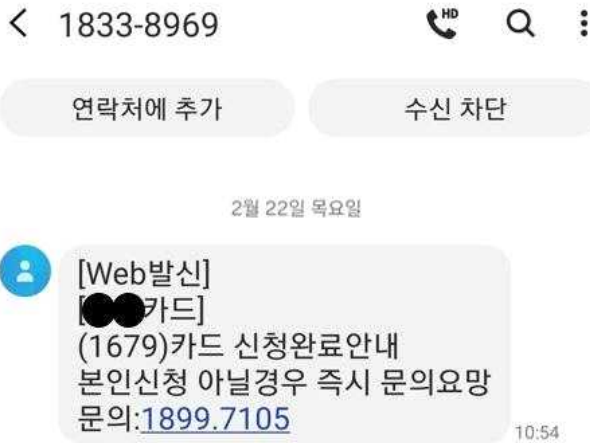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

정부기관 사칭 사례

- 피해자 A씨는 '23.2월 ●●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“카드 신청이 완료되었다”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
- 사기범 일당인 상담원은 “A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가 필요”하다고 안내
-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전화로 “A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표통장으로 사용되었다”며, “A가 피해자인지, 가해자인지 수사 할테니 협조하라”고 협박
- 사기범은 “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”며 A가 대출을 받아 사기범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압박함으로써 A는 1억 3천만원의 피해를 입음

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



위조된 가짜 구속영장



## 대출빙자형 피해사례

### (사례1)

- '23.10월 피해자 B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김
- 다음날 'OO은행 직원 박■■■'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다며 만남을 유도
- 사기범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니 편하게 ■■■이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후 "은행권에서 어려운 대출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"고 기망
- 피해자는 사기범이 요구한 대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13회에 걸쳐 1억 4,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, 사기범이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자취를 감추면서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사기관에 신고

### (사례2)

- '23.8월 피해자 C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서민금융 대출광고를 보고 본인의 연락처를 남김
- 다음날 '서민금융진흥원 김□□ 대리'로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1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 대출금 3,000만원을 상환하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카드사 직원이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기망
- 피해자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3,000만원을 교부
- 이후 사기범2는 XX은행 서민금융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카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, 1,000만원을 입금하면 서민금융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해당 금원은 다시 반환해줄 것이라고 기망
- 피해자는 사기범2가 지시한 계좌로 1,000만원을 송금하여 총 4,000만원의 피해를 입음

## 스미싱 사례

- '23.12월 피해자 D는 지인을 사칭한 신원불상자로부터 "부친이 사망 하셨습니다"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메시지에 포함된 URL에 접속
-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었고, 사기범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
- 다음 날 사기범은 한 별정통신업체에서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통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9천 3백만원 가량의 현금을 편취

보이스피싱 피해 세부현황 (연령별·유형별 피해금액)\*

(단위 : 억원, %, %p)

구분		'22년(A)		'23년(B)		증감(B-A)	
		금액	(비중)**	금액	(비중)**	금액	(비중)
20대 이하	대출빙자형(a)	28	(30.0)	39	(16.9)	+11	(△13.1)
	사칭형(b=c+d)	65	(70.0)	192	(83.1)	+127	(13.1)
	메신저피싱(c)	5	(5.2)	2	(1.0)	△3	(△4.2)
	기관사칭(d)	60	(64.8)	190	(82.1)	+130	(17.3)
30대	대출빙자형(a)	37	(70.0)	109	(58.1)	+72	(△11.9)
	사칭형(b=c+d)	16	(30.0)	79	(41.9)	+63	(11.9)
	메신저피싱(c)	2	(3.7)	4	(2.4)	+2	(△1.3)
	기관사칭(d)	14	(26.4)	74	(39.5)	+60	(13.1)
40대	대출빙자형(a)	65	(44.7)	179	(72.2)	+114	(27.5)
	사칭형(b=c+d)	80	(55.3)	69	(27.8)	△11	(△27.5)
	메신저피싱(c)	55	(37.7)	29	(11.6)	△26	(△26.1)
	기관사칭(d)	25	(17.6)	40	(16.3)	+15	(△1.3)
50대	대출빙자형(a)	98	(20.6)	227	(40.6)	+129	(20.0)
	사칭형(b=c+d)	379	(79.4)	333	(59.4)	△46	(△20)
	메신저피싱(c)	339	(71.0)	257	(45.8)	△82	(△25.2)
	기관사칭(d)	40	(8.4)	76	(13.6)	+36	(5.2)
60대 이상	대출빙자형(a)	80	(11.9)	127	(18.1)	+47	(6.2)
	사칭형(b=c+d)	593	(88.1)	576	(81.9)	△17	(△6.2)
	메신저피싱(c)	523	(77.7)	359	(51.0)	△164	(△26.7)
	기관사칭(d)	70	(10.4)	218	(30.9)	+148	(20.5)
합계		1,440	100.0	1,931	100.0	+491	-

보이스피싱 피해 세부현황 (연령별·유형별 피해자 수)\*

(단위 : 명, 백만원, %, %p)

구분		'22년(A)			'23년(B)			증감(B-A)		
		피해자수	(비중)**	인당 피해금액	피해자수	(비중)**	인당 피해금액	피해자수	(비중)	인당 피해금액
20대 이하	대출빙자형(a)	149	(23.2)	19	252	(13.6)	16	+103	(△9.6)	△3
	사칭형(b=c+d)	494	(76.8)	13	1,601	(86.4)	12	+1,107	(9.6)	△1
	메신저피싱(c)	28	(4.4)	17	22	(1.2)	10	△6	(△3.2)	△7
	기관사칭(d)	466	(72.5)	13	1,579	(85.2)	12	+1,113	(12.7)	△1
30대	대출빙자형(a)	182	(68.9)	20	514	(62.9)	21	+332	(△6.0)	+1
	사칭형(b=c+d)	82	(31.1)	19	303	(37.1)	26	+221	(6.0)	+7
	메신저피싱(c)	30	(11.4)	6	34	(4.2)	13	+4	(△7.2)	+7
	기관사칭(d)	52	(19.7)	27	269	(32.9)	28	+217	(13.2)	+1
40대	대출빙자형(a)	324	(33.1)	20	867	(69.1)	21	+543	(36.0)	+1
	사칭형(b=c+d)	655	(66.9)	12	387	(30.9)	18	△268	(△36.0)	+6
	메신저피싱(c)	573	(58.5)	10	215	(17.1)	13	△358	(△41.4)	+3
	기관사칭(d)	82	(8.4)	31	172	(13.7)	24	+90	(5.3)	△7
50대	대출빙자형(a)	441	(10.2)	22	1,035	(30.5)	22	+594	(20.3)	-
	사칭형(b=c+d)	3,879	(89.8)	10	2,355	(69.5)	14	△1,524	(△20.3)	+4
	메신저피싱(c)	3,752	(86.9)	9	1,976	(58.3)	13	△1,776	(△28.6)	+4
	기관사칭(d)	127	(2.9)	32	379	(11.2)	20	+252	(8.3)	△12
60대 이상	대출빙자형(a)	322	(5.0)	25	586	(14.8)	22	+264	(9.8)	△3
	사칭형(b=c+d)	6,108	(95.0)	10	3,384	(85.2)	17	△2,724	(△9.8)	+7
	메신저피싱(c)	5,946	(92.5)	9	3,000	(75.6)	12	△2,946	(△16.9)	+3
	기관사칭(d)	162	(2.5)	43	384	(9.7)	57	+222	(7.2)	+14
합계		12,636	100.0	11	11,284	100.0	17	△1,352	-	+6

\* 피해구제신청접수(1차 계좌) 기준(법인 피해자 제외)

\*\* 각 연령별 피해금액/피해자 내 비중




### 붙임3

##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

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상습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\*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공개된 사례 중 대출빙자·기관사칭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!

\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→민원·신고→보이스피싱지킴이→보이스피싱 체험관  
(<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203/list.do?menuNo=200686>)

### 1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범

순번	접속 URL	QR코드
1	<a href="https://youtu.be/HL8jMmbCvkk">https://youtu.be/HL8jMmbCvkk</a>	
2	<a href="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203/view.do?nttlId=18311&amp;menuNo=200686&amp;sdate=&amp;edate=&amp;searchCnd=1&amp;searchWrd=&amp;pageIndex=4">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203/view.do?nttlId=18311&amp;menuNo=200686&amp;sdate=&amp;edate=&amp;searchCnd=1&amp;searchWrd=&amp;pageIndex=4</a>	
3	<a href="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203/view.do?nttlId=18310&amp;menuNo=200686&amp;sdate=&amp;edate=&amp;searchCnd=1&amp;searchWrd=&amp;pageIndex=4">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203/view.do?nttlId=18310&amp;menuNo=200686&amp;sdate=&amp;edate=&amp;searchCnd=1&amp;searchWrd=&amp;pageIndex=4</a>	

### 2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범

순번	접속 URL	QR코드
1	<a href="https://youtu.be/gtNpL6hU8hw">https://youtu.be/gtNpL6hU8hw</a>	
2	<a href="https://youtu.be/10muiDI3Kic">https://youtu.be/10muiDI3Kic</a>	
3	<a href="https://youtu.be/N1QwBWTJXoY">https://youtu.be/N1QwBWTJXoY</a>	